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목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중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시편 135: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4)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중헌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김성관 목사 설교

갈렘의 신앙

“갈렘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민 13:30)



정확하나 믿음없는 보고

“갈렘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민 13:30). 보잘 것 없는 젊은 청년 갈렘이 모세 앞에 가서 ‘지체 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곧방에 왔고 이제 움직여야 될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으므로 430년간의 노예생활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험난한 여행의 길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렘보다는 세상의 근심과 아픔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야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민 13:26). 이들이 가서 보니 과연 꽃과 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라하신 그 땅의 실과를 보았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정말로 꽃과 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민 13:27). 이들은 그 땅의 좋은 것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져온 더 중요한 나쁜 소식은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큰 문이 아니라 거기서 아주 자손을 보았으며”(민 13:28)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보고는 정확합니다. 현실적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데 갈렘이 안둔시키면서 전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갈렘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민 13:30a). 갈렘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가 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주지침이 없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생길 때에 믿음은 찾아 볼 수 없게 되며 대신 인간의 명철, 경험, 실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형제야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읍 곧 아론의 수읍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 133:1-3). 현실적으로는 보잘 것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기쁨부움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혜와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해 왔지만 정말 중요한 시험은 믿음의 결단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렘은 참된 소망,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취하자고 합니다. 이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갈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갈렘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민 13:30). 이 말의 속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능히 이길 것이 없는 것을 갈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세상의 모든 기업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 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도다”(사 40:3).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게 주며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이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약속

의 땅에 옮기라고 하십니다. 올라가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남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도 일꾼은 적으니”(마 9:37).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페림 후손 아나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에도 매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민 13:32~33)라며 믿음 없는 고백을 했습니다.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큰 민족, 큰 거민, 견고한 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렘은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아무도 초라한 가나안 거민을 보았습니다. 그는 올라가서 취하자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은 것입니다. “오직 내 종 갈렘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간된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민 14:24). “오직 여인들의 아들 갈렘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갈렘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민 13:36).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은

갈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라...”(사 14:12). 갈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므로 용기있는 도전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갈렘과 같은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라”(요일 5:1).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행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조물입니다. “복음에는 하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므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하시네. 믿음으로 따라가면 의에 이를 수가 있도다.”(고로 2:12). 복음에 대한 신념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앞에 가서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의해서 복음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예루살렘에서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사람들에게 존중하여 아들을 믿게 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악의 영에 매여 있는 자들을 취해서 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에게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희생한 것보다 더한 기쁨이 내 마음 속에 생깁니다. 고난과 번민이 아니라 기쁨이 옵니다. 믿음으로 희생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들이 십자가를 지며 희생하면서 피로써 얻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고난의 길, 매달음의 길, 악율함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로 행할 때에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갈렘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온전히 순종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 하나님, 창조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은 내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여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취하기 위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

구약에 나타난 선교 -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출발점을 신약 특히 사도행전에서 찾으려 한다. 그렇지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구사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자연히 구약성경이 자극적 선교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타락과 구속의 두 시점을 잇는 하나님의 선교가 드러나는 것이다. 우선,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3장부터 11장에서는 선악과 사건과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을 통해 '타락'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을 '구속'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창 12장) 아브라함을 그 '복'의 근원으로 삼으심으로 또 다시 새롭게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타락'과 '구속'의 연약을 성취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이 이 구속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셨고,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사용하셨다. 모든 족속을 '구속'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이다. 그러므로 구약은 선교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처럼 구약에도 신약처럼 복음과 선교의 메시지가 들어 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하시 곧 하나님의 '보내심'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신다. 이처럼 신구약 모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다는 자들이 나온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역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다시 이방의 빛으로 보냄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냄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선교의 역사를 이끄셨다.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나나 다니엘처럼 강제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있다. 물론 다니엘은 자의적 반항이 아니라 타의적 반항으로 이방으로 끌려 갔지만 그 역시 그 곳에서 이방의 빛이 되었다. 또한 시바 여왕과 뫄과 같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듣기 위해 이스라엘로 들어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벨론과 구다와 이와와 하맛과 스발와임과 같이 앗수르 왕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스라엘로 끌려와(왕하 17:24) 결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있다(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사마리아에 강제로 이주한 이들의 후손은 예수를 만난 여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는 사건을 대면하게 된다. 요 4장).

I. 구약에 있는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1장~11장에 나타난 세 가지 제양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지만 우리는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 3:15).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겠다고 아담과 약속하셨고 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구속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선교'이다.

또한 이 세상에서 죄가 관영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켈의 장막으로 모든 족속이 멸망을 것을 약속하셨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아벳을 창대케 하사 생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창 9:11,13,27).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역시 '선교'라는 당시의 열심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한 민족이 여러 민족으로, 한 언어가 여러 언어로 갈라지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멸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이다"(창 11:6).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흠어진 족속들이 다시 한 민족으로 모일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셨는데 이것이 바로 선교이다(행 2:4, 계 7:9,10).

창세기 12:1~3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과 계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흠어진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그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다(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러나 이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3b)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 이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역학을 감당하는 복을 말한다. 이 '복'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구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우리는 복을 받았다. 결국 예수 그리

스도를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복은 물질의 개념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이유는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신다(창 18:18; 22:18; 26:4; 28:14).

바로와 대면하는 모세, 창조와 출애굽기 19:4~6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소부'이며 '제사장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언약을 주시며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루신 이 언약은 복음전달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가나안은 정자 '왕'의 대로(King's Highway)가 되어 세계 모든 열방이 그 곳을 지나가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들이 가나안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구속의 언약을 듣게 하기 위해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사서 그들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열방을 향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구속하신 것이다(벧전 2:9).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열방의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국한시키는 잘못을 범하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교인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빛을 삼으셨던 것처럼 지금 교회에 속한 우리도 이방의 빛으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제도를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다윗에게 주신 언약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할 때에 내가 네 곁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삼하 7:11~13).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네 수한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 물려가면 내가 네 뒤에 내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대상 17:11).

이처럼 구약은 신약처럼 동일하게 선교를 요청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신약의 저자들과 동일한 메시지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처럼 '이방의 빛'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였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

II. 구약에 있는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시편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며 예배이다. 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이다. 예수를 만난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요 4:20)라 참된 예배를 행하는 본래로 고한시키려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고 이 산에서 드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러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1,23)라 참된 백성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참된 예배의 조건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이방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왜 일까?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시편은 “만방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께 돌릴지이다”(시 96:7)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대상을 이방에게까지 확대하여 명명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이방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이다. 시편은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예배의 대상을 모든 만민으로 만민으로 작용시키고 있는 지극히 신교적인 선교사의 노래이다. “너희가 나를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족속들도 나를 경배하도록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 가라는 것이 바로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적 열심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만민’, ‘온 땅’, ‘모든 족속’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찬양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방을 향한 신 하나님의 선교적 열심에는 무관심하고 현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시편은 한 개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며 개인에 대한 통찰과 회개가 있어야 하되만, 더 나아가 우리의 신령 속에 이 모든 예수를 들지 못하여 헛된 신에게 절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여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이 땅을 달기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니(창 1:28) 우리 모두가 오직 예배를 드릴 때, 이 땅을 통치할 하나님께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을 사모하며 꿈꾸며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러한 꿈을 꾸었다. ‘대저 풀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 정부는 하는 것이 세상이 거두라야’(창 2:14).

시편 67번의 선교적 관점

시편 67번은 민수기 6:24-26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민수기에서 ‘네게’라고 표현된 부분이 시편 67번에서 ‘우리’로 확대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편 67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선교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해 여기서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시”(시 67: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출해 여기서 복을 주시게 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 복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났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시라”(시 67:2).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용인 구원이 만민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시 67:3). 결국 하나님의 공용이 이방민에게 전해져 그 공용을 깨달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며 주의 구원을 부르신 목적이다. 그리스도를 사귀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본받아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공용이 바로 구원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이 공용인 구원이 만민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신다. 요엘 선지자도 그 날이 임하는 날에 언급했었다(요 2:28-31). 이 예언은 성령강림으로 성취되었다(행 2).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게 인도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든 만민과 열방을 통치하실 것이다.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시라 함이 이것이니이다”(시 67:4). 주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 바로 선교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향한 신 하나님의 공의로 우선 판단과 치리는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시 67:5).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의 소산 곧 복을 주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셨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시 67:6). 여기서의 소산 곧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후신 물질적 축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 물질적 축복을 베푸셨는지 분별한 인식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 복을 주신 것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데 이 복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시 67:7).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부유한데만 목적을 둘 뿐, 하나님이 원하신 땅 끝 끝 이방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오해하고 있다. 우리는 그 복을 나누기 위해서만 사귀한다. 기복주의의 나쁜 이유는 우리가 열방, 이방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복주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은 모든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땅의 소산을 주셨다.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열방에게 우리의 복을, 우리의 피를 그들에게 수혈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도 이 땅의 부흥을 꿈꾸며 피와 땅을 흘린 신실한 복음의 전파자들로 인함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도 전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차례이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 땅에 부흥을 달라고 그 땅의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게 해 달라고 꿈을 꾸며 기도해야 한다.

시편 96번의 선교적 관점

하나님께서 시편 96번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방에 그의 구원을 나타내라 전하라고 하셨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나타내라 선포함지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함지이다”(시 96:2,3). 기이한 행적이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일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만민에 전할 것을 우리에게 명명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방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

또한 참된 창조주를 알고 그 지역의 험한 신을 헛기는 만민에게 너희의 우상을 헛기이라라고 선포해야 한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기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라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모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시 96:5,6). 선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므로 모든 열방이 헛된 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만방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께 돌릴지이다”(시 96:7).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모든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만방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이다”(시 96:7). 원래 한 민족, 한 혈통이었던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고백이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나옵나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신 통치를 선포하도록 그의 종들을 부르셨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군계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자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로다 할지르다”(시 96:10). 선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침내는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편 117번의 선교적 관점

시편 117번에는 모든 나라들(all nations)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초청은 후에 예수의 천국잔치 비유에도 나타난다(마 22장). 그렇다면 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시 88:9) 당신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여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 할렘무야”(시 117:2). 그런 데 시편 117번의 찬양의 대상이었던 모든 나라(all nations)가 로마서 15장 11절에서 이 땅을 의미하는 모든 이방(all gentiles)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초청은 이처럼 모든 족속, 땅 끝까지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초청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다른 민족들이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도 중요하다. 시편은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다른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만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것은 의 무를 저버린 채, 특권만 누리려는 이기적인 모습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이방민에 대한 공용찬미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선교해야 하고 전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족속들의 예배를 바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갈아가는 것이다. 땅 끝에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수없이 많아지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서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며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기 간
3교구 4지역	김성호	네 팔	7월 21일(월)~7월 30일(수)
1교구 6지역	김대용	네 팔	7월 22일(화)~8월 2일(토)
9교구 1지역	동방용은	카자흐스탄	7월 22일(화)~8월 1일(금)
15교구 6지역	박종현	카자흐스탄	7월 22일(화)~8월 1일(금)
9교구 6지역	김연태	키르기스스탄	7월 22일(화)~8월 1일(금)
6교구 2지역	김규석	네 팔	7월 23일(수)~8월 1일(금)
6교구 5지역	김대식	네 팔	7월 23일(수)~8월 1일(금)
8교구 8지역	손기현	인 도	7월 26일(토)~8월 4일(월)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기 간
13교구 3지역	권영주	카자흐스탄	7월 9일(수)-7월 22일(화)
13교구 4지역	임재봉	카자흐스탄	7월 9일(수)-7월 22일(화)
4교구 2지역	오준호	볼가리아	7월 15일(화)-7월 25일(금)
14교구 1지역	조홍진	우즈베키스탄	7월 15일(화)-7월 26일(토)
14교구 6지역	강만수	인 도	7월 15일(화)-7월 25일(금)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기 간
9교구 7지역	김승곤	카자흐스탄	7월 4일(금)~7월 15일(화)
14교구 5지역	황기용	몽 골	7월 4일(금)~7월 15일(화)
2교구 6지역	이영환	키르기스스탄	7월 8일(화)~7월 16일(수)
10교구 4지역	조영철	불가리아	7월 8일(화)~7월 18일(금)

뭉클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어용토야 (몽골팀)

제 이름은 아용토야입니다. 저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1982년 4월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울란바타르 시내의 ‘성기나 하일강’에 있는 미려고등학교에서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1999년 5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월 12일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먼저 한국에 가 있었고 아버지와 여동생과 함께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자신의 의도하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온 후 가족들이 함께 충원교회와 외신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몽골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충원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몽골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다녔지만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 오매돌음 보면서 저도 그들처럼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눈을 뜨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참 기쁘습니다.

한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 왔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시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에 와서 충현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34)

스리랑카의 '갈레'란 지역에서 오전 전도사역을 하던 중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가정에는 3명의 식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결핵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가난으로 만든 집 안은 바닥을 비닐로 깔았고 가재도 두루 별로 없이 야박하게 꾸며졌다. 한 사람은 약상하게 뼈만 남아있고 언제나 누워만 있었다고 했다. 이 광경을 본 우리 일행은 화를 삼키고 이치러는 눈물을 참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전했다. 천양을 마치고 결신을 권할 때 병환이 고질병난다는데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그 가정은 적극적으로 결신을 표했다. 우리 일행은 환자를 위해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그들이 성령님을 모셔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 달리 우리가 물질과 병고집으로
 수 손 쓸 여지는 없었습니다. 성령님에게 나로 하여금 무엇을 다신 붙여 하신다면 그 또한
 내 대령으로 여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내가 다신 그 상상에 이라도 붙들면
 간절히 기도도 그 한자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다면 그 가치가 세상의 돈과 비
 가 못됐는가? 세상의 보물과 비약이 될 수 있었는가? 당시에 그 한자에게 성경 한 권
 을 꼭 보내주셨다고 약속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죄책감을 생각한다.

이번에 다시 선교를 가려고 한다. 이번에도 지난번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돌아보지 못한 부분들과 이제 세밀하게 돌아보니 복음을 더욱 철저히 전하라고 할 것이다. 팀원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다. 그래서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우리는 준비할 때, 우리가 죽어야 복음을 전한다는 각오로 각자 개인은 전혀 남지 않게 해 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성경남매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지난번에도 깨달은 바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번에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

11교구 1지역장



11교구 1지역장
김인술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35)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나쉬크(Nashik)로 갑니다. 나쉬크는 뭄바이에서 북동쪽으로 150km 떨어진 지역인데 관광지도 아니고 다녀온 팀도 없어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처음 팀을 구성했을 때는 인도에 대해 잘 아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자를 인도로 정했는데, 그 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결정한 나라이니 가기로 가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런 저런 자료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나귀크라는 지역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워낙 광활하고 유명해서 어디를 보아도 관공에 관한 정보가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다는 정보도 있네요. 특별한 행사가 있다는 게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에 대한 도전이라 하고 할까? 길 차량편도, 가서 목을 속소에 대해서도 미리 아무것도 정할 수 없었지만 권사님들이 제일 먼저 '가뭇시다' 하고 올해부터 저들이 무슨일이든 안 따를 수 없었죠. 최후에는 오직 일대일 전도만을 할 계획으로 한 사람당 한 부 정도의 전도지를 가지고 갑니다. 언어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전도지를 통한 일대일 전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권정도와 열려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충성된 종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더운 날씨 때문에 팀원들 건강이 조금 어려웠네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교구 4지역장
구재현



2교구 4지역장
구재완

(엄정섭 기자)

세상 속에서 경장을 메고

정 순 규 (청년1부 신임부 조장)



신임부에는 교회를 처음 나오는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부에서 올라오는 청년들도 있다. 대학부에서 올라오는 청년들은 이미 주님을 알고 있어 청년부에 적응만 하면 되는데, 교회를 처음 오는 청년들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우선,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본적인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 그래서 나의 경우는 일단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후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긴다.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뿐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지만 초신자들이 성도들은 모두 성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성도들도 결국 아직 죄의 습관을 완전히 벗지 못한 죄인들이고 실수를 할 때도 많은 낙한 존재들인데, 세 신자들은 성도들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성도들에게 실망을 하는 것이다.

조원들과 가장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부분은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이다. 주로 세상의 틀에 구애받아 주님의 뜻에 어긋났던 경험들을 나누곤 한다. 예를 들면 직장을 구하는데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구하기보다 연봉 높은 곳을 구하는 경우를 나누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얼마 전 조장 성경공부에서 한 말씀을 보았다. “그 두 보석을 예복 두 건데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서 기념이 되게 할지라”(출 28:12). 당시에는 말씀과 같이 제사장의 어깨에 구별된 보석이 붙여졌다. 지금에 이르러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두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경장을 달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인 내

일반적으로 ‘인내’라 함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만 이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임이라”(롬 5:3-4)라고 나와 있다. 즉 인내는 환난에서 소망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인내가 필요할까?

성경은 이에 대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히 10:36)라고 말한다. 즉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고난 중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성품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4).

위대함이란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거나 큰 업적을 쌓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데 있는 것 같다. 어느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 문제는 그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눈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그저 고통스럽기만 하지만, 지금껏 나와 함께 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위대함이다.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다.



신연주 (청년1부)

충현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이 종 원 (장학생)



로마시대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였던 십자가 형식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교회마다 그 건물의 상징을 십자가로 하는 것일까. 교회 외형에서부터 나타나는 이 십자가의 존재는 분명 모든 교회에 중요한 의미일 텐데, 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강단에서 나오지 않는 것일까. 모든 교회와 크리스천의 기본 신앙서는 성경이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보면 이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또한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십자가는 나에게 은혜의 통로이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벧전 3:18a). 죄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 막아 나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도록 내어 주셨다. 이로써 내 죄는 사해되고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은 본래 의인이시기에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인’에게만 내리지는 형벌이기 때문이다. “...죽음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오히려로는 생명을 받으셨으

나”(벧전 3:18b).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있기에 나에게 십자가는 은혜의 통로이다.

십자가는 나에게 고난의 길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눅 9:23). 인간인 나에게 십자가는 고난이다. 철저히 내 생각과 경험, 지식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과는 점점 멀어져 단절되지 않을가 하는 염려도 있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기득권도 있기에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절멸을 받으며 내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가 돌아보는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감사의 길이다.

십자가는 나에게 빛점의 길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 1:16). 나 혼자만 이 복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는 없다.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수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어 놓아야 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내 힘, 노력, 의지가 아닌 전적인 ‘은혜’ 이기에 나 역시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 바울 역시 자신이 복음에 빚진 자라 고백하며 땅 끝까지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20).

이처럼 십자가는 나 뿐 아니라 모든 교회와 크리스천에게 중요하다. 우리의 존재의 원인과 살아갈 이유가 모두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를 구원으로 이끈 은혜의 십자가,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고난의 십자가,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는 빛점의 십자가는 오늘날, 내일도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다. 오늘날 기도한다. ‘주님, 이 십자가 은혜를 결코 머리로는 알게 하지 마시고 마음 깊이 느끼고 경험하게 하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강정임 (집사, 17교구)



위임이 걸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 주어 고맙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살아야 할 것보다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데 배워야 할 것 같아 미안하게도 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그저 힘이 없을 뿐이고 통증을 밤에 읊니다. 통증이 올 때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곤 합니다. 몸은 점점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지만 정신은 점점 맑아집니다. 내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게 됩니다.

지금도 더 살고자 하는 욕망이 문득문득 생기곤 합니다만, 주님과 교제를 하며 곧 다시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죽음은 얼마나 끔찍할까요? 제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음성가에 있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 그 찬양이 딱 저의 마음입니다. '지난 한 해도 감사. 다가오는 한 해도 감사. 나를 비우시고 또 채워주시니 감사 감사 감사 또 감사.'

지금도 더 살고자 하는 욕망이 문득문득 생기곤 합니다만, 주님과 교제를 하며 곧 다시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죽음은 얼마나 끔찍할까요? 제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음성가에 있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 그 찬양이 딱 저의 마음입니다. '지난 한 해도 감사. 다가오는 한 해도 감사. 나를 비우시고 또 채워주시니 감사 감사 감사 또 감사.'



예수여, 당신의 보혈과 의로움은

예수여, 당신의 보혈과 의로움은 내 아름다운이요 광채(光彩) 나는 웃이오니 심판의 맹렬한 불에 이 세상 찢어질 때 나는 그 옷을 입고 기쁨으로 내 머리를 들리이다

당신의 보좌 앞에 나 담대히 서리니 당신의 은혜 입은 나를 정결할 이 누구리요 당신의 보혈과 의로움은 내 모든 죄를 사했으니 죄와 두려움 걱책과 수치는 나와 관계 없도다

주여, 나 당신의 보혈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배푸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당신의 보혈은 모든 죄인 위하여 영원히 흐르시니 우리를 위해 내 영혼 위해 흘리신 보혈이라

주여, 나 당신의 구원을 믿나오니 죄인들의 수가 바다 모래알보다 많을지라도 당신은 그 모두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셨을이라 죄인들을 위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나이다

"니콜라우스 지넨도르프(Nicholaus L. Zinzendorf) 작시

참고 구절: 사 61:10, 롬 3:21-25, 5:8-11, 8:31-34, 빌 3:7-11, 딤후 2:5-6, 히 9:11-15, 계 7:9-17

다 음 주 일 찬 송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 찬송은 작곡가 존 스웨니(John R. Sweney, 1837-1899)가 1894년에 사랑과 찬양의 노래집(SONGS OF LOVE AND PRAISE)에 처음 실은 곡이다. 작시자는 태어난 지 6주만에 시력을 잃은 시달렸지만 영혼은 오히려 점점 더 청결하게 되어 늘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였다. 그리하여 어린 나이에 영적 전리를 가득히 간직하게 되었고 그것이 실제였어 시가 되어 흘러나왔다.

천국에서 주님을 친히 뵈을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확신되고 힘차게 찬양해야 한다.

- 1절: 내 일생 마치고 깊은 강 건너면 밝고 영광스러운 아침 보게 되리니 강 저편에 다 다르면 내 구세주 알게 되리. 주께서 웃음으로 날 영접하실 것이라.
- 2절: 주의 거룩한 얼굴 비춤 때 영혼 시로집을 기쁨, 다정하게 빛날 주의 광채, 날 위해 하늘 찬소 예비해 주시는 그 자비, 사랑, 은혜, 어찌 다 찬양하리.
- 3절: 사랑하는 자들 날 오라고 부르네. 강가에서 우리의 헤어짐 삼키하노니 아름다운 예언 골짜기 보함으로 환영하는 노래 부를 것이라. 무엇보다 먼저 내 구주 뵈는 것 열망하네.
- 4절: 깨끗한 흰 옷 입은 주께서 결코 누를 일은 곳으로 날 인도하시리. 만세의 기쁜 노래 속에 나 파문하게 되리니 그 보디는 구세주 만나는 것 더 열망하네.

(후렴) 주를 알게 되리. 구속 받은 후 주의 곁에 내가 서게 되리. 그의 손의 뜻자극으로 주를 알 수 있게 되리라. * 본가사는 영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천양위원회)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오광석'성도를 소개합니다



어머니가 불교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생 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교 중 한 분이 계속 전도를 하셔서 호감을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이 시흥시 정왕동이라 처음엔 교회 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기

다러지고 마음이 편하며 오는 길이 기쁩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주일만 되면 경마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고 나니 자연히 경마장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분에 상관없이 있으면 그냥 넘기고 다른 유족들이 와도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기쁩니다. 기독교인이 된 것이 처음이다보니 목사님 말씀 중에 무슨 말인지 배경을 전혀 모르는 말씀이 많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찬송을 통해서 많이 이해하게 되어서 찬송을 좋아합니다. 성도를 모습 속에서도 많은 것을 봅니다. 모두 한 가족 같아 좋고, 근심 걱정을 서로 나누고 주님께 맡기는 것 같아 좋습니다.

가끔 일이 생겨 교회를 못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자주 예배시간이 신경쓰이고 혼자서라도 기도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가 다른 친구들과 만날 때에도 예전에는 세상 이야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에 가려면 전도하고 권면합니다. 친구들이 가든 안 가든 그것은 친구들의 자유이지만, 일단 전도를 하면 친구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모두 다 함께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실)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함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성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865	한미영	1	경안교	김규석(6)	883	김경미	14	소양부	김승희(8)	902	김경남	19	대학부	최수영(6)
866	류규환	2	소양부	박종규(2)	884	홍준성	14	소양부	김승희(8)	903	정경남	19	대학부	이은영(19)
867	김장훈	3	소양부	황영환(4)	885	홍준성	14	소양부	김승희(8)	904	이은진	19	대학부	이은영(19)
868	이정민	3	경안교	이현진(3)	886	김정민	19	대학부	권은희(8)	905	김지현	19	대학부	김수진(19)
869	박영희	3	경안교	박영희(4)	887	한민준	15	광안교	정은희(4)	906	조영환	19	대학부	
870	이기민	3	경안교	김정민(8)	888	유준서	15	칠곡		907	이연정	19	대학부	권은희(2)
871	최광호	3	경안교	이현진(3)	889	김정민	15	광안교	김지현(7)	908	정경남	19	대학부	박현옥(19)
872	신성현	6	양곡	이현진(3)	890	이현진	15	광안교	김지현(7)	909	이현진	19	대학부	김자옥(19)
873	장남준	8	소양부	이현진(3)	891	김정민	15	광안교	송현희(9)	910	박현옥	19	대학부	홍순진(1)
874	박정훈	10	소양부	유승원(15)	892	최현호	17	경안교	송현희(9)	911	박현옥	19	대학부	홍순진(1)
875	김정훈	10	소양부	김승희(14)	893	신성현	17	경안교	최광호(12)	912	박현옥	19	대학부	남정희(15)
876	박정훈	11	소양부	박종규(4)	894	유승원	17	경안교	김정민(9)	913	유승원	19	대학부	고혜진(6)
877	이영환	12	경안교	송현환(7)	895	이현진	19	경안교	김정민(9)	914	유승원	19	대학부	송영진(2)
878	김정민	12	경안교	송현환(7)	896	송현환	19	경안교	이현진(7)	915	조영환	19	대학부	고혜진(6)
879	지재국	12	경안교	지재민(17)	897	박정민	19	경안교	이현진(7)	916	정경남	7	경안교	태광희(10)
880	이영환	12	경안교	지재민(17)	898	김정민	19	경안교	이현진(7)	917	정경남	19	대학부	김승희(19)
881	최현호	13	소양부	이현진	899	이현진	19	경안교	주미영(4)	918	정경남	19	대학부	김승희(19)
882	김희진	13	소양부	고민준	900	고민준	19	대학부	김정민(9)	919	노비	19	대학부	박성진(1)

※ 송현교회 한기옥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되신 주님

허 에스더 (유아부 사랑1반교사)

유아부 교사로서 나의 기도는 목자되신 주님을 본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어린 영혼들을 말씀의 푸른 초장과 설 만찬 물가로 인도하기에 나는 부족한 것이 많다. 인간적인 사람만으로는 참 목자로서 바르게 설 수가 없다. 그리스의 편지가 어린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 막 찬 줄 한 새 저절로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멀리는 마음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 의지할 뿐이다.

처음에는 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사랑으로는 그들을 다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저 아이들의 주변에 있을 뿐 아이들의 마음에 다가서지는 못하는 나를 발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들의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했다. 오직 성령만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을 깨닫고서야 일찍이 느껴졌던 아이들의 영혼을 비로소 내 안에서 느낄 수 있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어린 아이였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다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전하는 통로일 뿐이다.

그리고 이 통로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다는 것은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유아부 아이들이 내게 무언가를 해준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내 품안으로 달려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 된다. 이와 같이 나는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자체를 기쁘고 사랑스럽게 받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기쁨이 내게도 몰입 듯이 넘쳐서 벅차오른다. 작은 입을 오물거려며 말씀을 따라 읽으면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그저 이 귀한 영혼을 내게 맡기신 자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이 어린 아이들의 중심에 진실되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것이다. 이 아이들을 향한 나의 가장 극대화된 사랑의 표현은 기도이다.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율동들 잘 따라하는 아이나 그렇지 않은 아이나 활발한 아이나 수줍어하는 아이나 사랑스러움에 있어서 차별되지 않는다. 표현이 어떻게 되어지든 그 아이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능숙하게 표현하지는 못해도 그 마음으로 힘껏 표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중심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다. 자라나는 시간이 인내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연약한 나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조금이나마 본받으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유아부 아이들이 하나님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 마음에 주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함이 자라난다면 유아부 교사로서 내게 은혜를 입는 것이라 생각한다.

순수한 고백

이 선 화 (유치부꽃 5반 교사)



"나를 사랑하시는 고마운 하나님, 무엇이 나 무엇이나 드리고 싶어요, 피까웃을 드릴까요? 나는 나의 무엇이냐 드리고 싶어요."

매 주 유치부에서 부르는 찬양이다. 아이처럼 단순하고 솔직한 찬양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고마운 하나님" 하고 첫 소절을 부르고 나면 감사가 마음에 가득 차오른다. 이 찬양을 하면 나도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주님께 감사하게 된다.

유치부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은 마치 천사 같다. 선생님을 따라 예쁘게 순종공부

하고, 조그만 입으로 신나게 찬양하고, 설교 말씀에 열심히 귀 기울이고, 성경공부 시간에 서로 대답하겠다고 손을 든다. 거짓없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예수님에 대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열어서 지켜보고 있자면 교사인 내가 오히려 도전을 받는다.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원이 되어 세상에 적응해가니 더욱 그렇다. 사회인이 되고 나니 일상과 피곤함 속에서 지쳐가는 나의 신앙을 느낀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어느새 사라져간다. 그러나 매 주일 아이들과 손뼉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순수하게 찬양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아이들에게서 새 힘을 얻는다.

부족하기만 한 나에게 '선생님' 이라고 부르는 아이들, 아이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지난 3년간 유치부 교사로서 있던 시간은 내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나도 아이들같이 순수하고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솔직한 신앙인,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집사님 방문 받는 날

손 석 진 (성도)

실로암 생물가에 핀 한송이 흰 백합
한 떨기 향기 풍기는 사루의 장미꽃

집사님 오시는 날, 울보 되는 날
찬송가 한 소절에 눈물 흘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에 눈물 흘리고
애굽은 기도 소리에 눈물 콧물 뿜어져
열 병상서 지켜보던 환우 덩달아 하나님 찾네
자네들도 내가 왜 눈물, 콧물 흘리는
울보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큰 사랑을 받아보게.

"손석진 성도는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지속적으로 성경공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있어왔습니다."

믿음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왕상 17장)

왕국 분열 후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들의 타락으로 위상상승에 가득하였습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고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려져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1절). 이 예언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상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며, 바알숭배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당시 바알은 땅에 비를 내리며 생산력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비를 주관하는 능력조차도 여호와와 손안에 있다는 이 예언은 바알이 생생 없는 거짓 신임을 알리는 것이지요.

"여호와와 말씀이...나는 여기서 떠나...그리 너희에게 숨고...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24절)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는가? 그것도 부정할 까마귀가?'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엘리야는 아합의 위협을 피해 그곳 시냇가로 피신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요(5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나요? 나의 무서운 적은 바로 내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엘리야는 이제 까마귀도 순종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6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와 강권적인 은혜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지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 마르니라"(7절). 이 가뭄은 3년 6개월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바알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뭄을 내리신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있라고 하셨던 곳에 있는 그 시냇가도 말라서 엘리야도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재앙 속에 사랑하는 백성들도 참여시켜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악한자들에게는 저주이며 형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이지요. 시냇가 마른 것은 분명 엘리야에게도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엘리야는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그동안 물을 공급해주고 떡과 고기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내가 마시던 시냇가 마랐을 때, 나는 감사와 찬양으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가 생각해 보았지만,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 죄 된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아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에만 파묻혀 안일하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말이에요.

(권원희 기자)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 3지회 월례회
일시: 7월 23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2. 군전도회 월례회
일시: 7월 25일(금) 18:00
장소: 베다니홀

◆ 남반 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전도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2003년 7월 첫 주 ~ 2003년 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3년 1월 ~ 6월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 (교육관 6층)
4. 준비서류: 시산표 2부 (2003년 1월 ~ 6월), 급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 제1등산 묘본 전제 이장 (전도자들은 이장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중헌기도원 내에 있는 묘본 전제를 제 2등산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계속 광고하여 이장을 해 왔지만 이번에는 중헌기도원 내 제 1등산 장소에 새로운 용도가 생김에 따라 백작 절차를 밟아 전제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묘본의 연고자들은 이번 기회에 이장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고자들이 이장을 하지 않는 경우 법 절차를 따라 의뢰로 이전하게 됩니다.
문의는 교회 사무국의 강병수 집사(016-9252-7469).
제2등산의 묘본식 집사(011-237-9617)에게 해 주시면 됩니다.

◆ 2003년도 후반기 장의장생 신청자 눈빛 및 면접 안내

일 시: 2003년 7월 26일 오전 9:30 ~ 장 소: 제 1교육관 207호
대 상: 대학생·대학원생(전반기) 장의장생 재외

직원 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임부문: 온전직·경비직
2. 지체: 세례교인
3. 재출: 서류 자필 이력서·주민등록본
당회장 추천서(태고인)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중헌교회 사무국 ☎ 52-82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헌교회

이반주 새벽기도회 담당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주일)
결과/지도자	장진호/김영은	정충신/함승호	안치원/권봉철	이성욱/백종원	이종대/강영환	방준영/이수경	이종철/정연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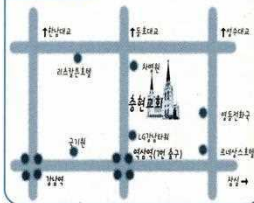
예배 담당안내 (7/23-7/27)

날짜	예배	예배 전 찬양	사회	기도	설교
7/23	수요 I	헌신예배/예배위원회	류병희	양명자	중보(담전 25) 이종대 목사
7/23	수요 II		김영준	최대인	중보(담전 25) 이종대 목사
7/25	금요일회	특별찬양 (소프라노 김희연/트럼펫 최두루, 최고음/NMC 병원진전대)	정현민		김동하 목사
7/27	주일 I	예배찬양 금요일회 및 월요일회(임마누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은 세상이 감람하여서 외 바이올린 김유정(합창팀 오케스트라 악장) 구주를 생각한 헤도 외 바이올린 김소현(합창팀 오케스트라 악장) 그리스 하나님의 사랑 외 바이올린 김소현(합창팀 오케스트라 악장)	장 훈	정운식	갈렐의 믿음(민 13:30-35) 김익환 목사
7/27	주일 II		김교성	김천제	갈렐의 신앙(민 13:30) 여성기 목사
7/27	주일 III		이종철	조종환	갈렐의 신앙(민 13:30) 여성기 목사
7/27	주일 IV		여극근	김단용	갈렐의 신앙(민 14:6-12) 고광환 목사
7/27	주일 V		이병욱	이병욱	갈렐의 신앙(민 13:30) 김동하 목사
7/27	주일찬양		위관장	장영대	넘치는 고난, 넘치는 위로(로마 13:11) 방준영 목사

중헌기도의향

1.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지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동료로 사역하여 주소서.
2.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적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3. 정모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기를 힘쓰게 하소서.
4. 중헌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6. 교구별 태산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중헌교회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7. 단기선교를 통하여 중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분 · 들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9: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물론이거 드리는 예배)		
전날예배	오전 5:00	본 당
수요일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일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회	시 간	차량
회오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출발
금요일회	오후 11:00	금요일회 후 본당 출발

구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II 오전 10:50	교육관 110호
유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201호
	II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I 오전 9:00	제2교육관 1층
	II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대학 부	토,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 간	장 소
청년 2부	오후 12:20	교육관 501호
장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랑 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신앙교차점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사 랑 부	오전 11:00	복지원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박찬) 오후 10:00(박)	교육관 207호
탁 아 부	오전 9:00 오후 2:00	교육관 102호
생각각부	오전 9:30	갈릴리움, 베다니홀
중헌어린이집	주요교원	교육관 407호
초기교육원	주요교원	중헌 복지원
국립한국문화원	오전 11:00	이 면 홀
중헌선교훈련원	오후 6:10	갈릴리움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김희철	김은호	노광원	오진국	이병학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최대인	이필식	강도원	이 훈	남선우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정운식	김영철	조인제	김종구	최두길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김천제	이창호	차진득	김광남	이종서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이병욱	안종욱	임무현	최기홍	이갑재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전홍용	전홍렬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한송규	김영우	김환기	원용철	이형수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안동현	황의민	김구형	최은덕	이계인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박덕양	이대식	정태두	박용규	권영욱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조종환	배준식	김영남	이성호	박찬성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최지우	노영환	박철구	정정길	신상수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강철형	고계승	김영은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정권	박인기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준	이국진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김교성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나영일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정진호	김성욱	이성욱	고광환	위관장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김익환	김정우	장 훈	이원현	이대식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이태호	장충신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양재용				
신교목회				

■ 전도소장 이정철

■ 어린이집

정연희	신동주	윤인숙	한영훈	김연식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홍은숙	이국자	김갑자	안태호	정현민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조종환	강덕필	김정성	최문식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전은희	김영준	김정자	이수경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신교목회	

■ 전임장로 김진규

■ 전임목사 서문성

■ 전임목사 김소연

■ 단기선교 강기일(신교목회)

■ 협력목사 허효숙(이집트)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소림광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를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